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TOUR.GO

관광관련 정부정책

제335호 (2012년 12월 둘째 주) 연구기획조정실 · Tour.go.kr

[국토해양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 3
[국토해양부] 청주공항 민영화…안전한 공항안전이 먼저다! ····· 4
[국토해양부] 전북 고창 지역을 갯벌생태지구로, 경북 안동·영주 지역을 유교문화관광단지로 육성 ··· 5
[국토해양부] 해운대 해수욕장 이안류 안전사고 특허로 해결! ····· 7
[농림수산식품부] "어항" 어촌관광을 위한 새로운 시도 ····· 8
[농림수산식품부]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 인증 캠페인 문화여가친화기업 10개 선정 발표 ··· 10
[외교통상부] '아리랑'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확정 ····· 12
[서울특별시] 청계천 주변 일대에 관광호텔 건립 계획 허용 ····· 13
[서울특별시] 역삼공원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결정 ····· 14
[서울특별시] 서울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록 ····· 15
[부산광역시] 카자흐스탄 장기휴양형 의료관광 찾아 부산을 누빈다! ····· 17
[부산광역시] 부산 강서구 일대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 국제물류 및 첨단산업 중심의 친환경 생태 수변도시 조성 ····· 18
[대전광역시] 대전시, 관광안내서비스 평가서 전국 '우수' ····· 20
[강원도] 숲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연휴양림 입장객 크게 증가 ····· 21
[강원도] 원주공항 최근 5년간 『이용객 최다, 탑승률 최고치』 기록 ····· 22
[경기도] 취약계층에 무료 겨울여행 제공 ····· 24
[경기도] 경기도, 동남아 공중파와 손잡고 관광객 유치 총력 펼쳐 ····· 25
[경기도] 경기도 알짜 관광정보 어디 모였나 했더니 ····· 26
[경상북도] 아름다운 자전거길은 경북이 최고 ····· 27
[경상북도] 경북 문화재, 격이 높아졌다 ····· 28

[경상북도] 유교와 선비문화를 세계에 알린다…… 29
[경상북도] 경북 관광블로그, 대한민국 블로그어워드 '우수상' …… 30
[경상북도] 울릉도, '물 반, 고기 반' 바다목장 된다…… 31
[경상남도] 경상남도-(주)하나투어 관광객 유치 MOU 체결…… 32
[충청북도] 충청권 광역위, 내 손으로 만드는 여행 앱 출시…… 33
[세종특별자치시] 금강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대대적 개선…… 35
[전라북도]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워크숍 개최…… 36
[전라남도] 전남 순천에 시내면세점 지정 눈앞…… 37
[전라남도] 겨울여행은 온 가족 함께 남도에서 즐기세요…… 38
[제주특별자치도] 2013년부터 여권발급 수수료 2,000원 인하…… 40
[제주특별자치도] 2013년도 관광진흥기금, 도민중심으로 지원된다. …… 41

[국토해양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

□ 지난 11월 22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남경필 의원 등 172명 발의)』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특별법에는 국토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을 설치하는 내용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전용카지노 설치 허용, 기반시설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이 담겨 있다.

○ 정부는 특별법을 12월 11일자로 공포(시행 2013.9.11)하고, 특별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 마련 등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새만금사업은 1991년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시작하였으나, 2008년 2월 새만금을 '동북아경제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산업·관광 등 복합용도 위주의 개발 사업으로 사업목적이 전환되었다.

○ 이에 따라 2011년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새만금지역 30%를 첨단농업용지로 조성하고 70%는 산업、관광、국제업무、과학연구、신재생에너지용지 등으로 조성토록 하였으며,

○ 토지 용도별로 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 등 6개 부처에서 분산 개발하고 있다.

□ 그러나 이와 같이 부처별로 개발사업이 각각 추진되는 현재의 개발체계로는, 체계적인 개발이 곤란하고 사업의 속도가 나지 않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번에 새만금개발청이 신설되어 새만금지역을 통합 개발하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9월 특별법이 시행되고, 새만금개발청이 설치되면 새만금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새만금사업의 성공은 투자유치와 개발수요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해양부, 담당: 새만금개발팀 안지애 사무관 (044-200-3695) | 등록일 : 2012.12.11)

[국토해양부] 청주공항 민영화...안전한 공항안전이 먼저다!

– 청주공항 민간운영자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검사 실시

□ 청주공항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민간운영자가 운영하는 지역 거점공항으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하여 막바지 안전운영에 대한 검증을 앞두고 있다.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청주공항 운영을 맡게 되는 청주공항관리(주)에 대해 오는 12월10일부터 공항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공항운영증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항운영증명(Airport Operation Certificate)은 공항운영자가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 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장비 및 운영절차 등 안전운영체계를 갖추고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국제선이 운항하는 인천, 김포 등 10개 공항에 대해 시행하고 있고, 이 제도를 통해 공항운영자가 공항운영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 따라서, 청주공항관리(주)에서도 민간 공항운영자로서 정부로부터 안전운영체계에 관하여 증명을 획득하여야만 공항운영 개시가 가능하며, 그동안 공항운영증명을 위한 준비단계 행정절차로서 공항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며(‘12.11.13),

- 최근 증명절차의 마지막 관문인 공항운영증명을 신청함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 능력 검증을 위한 증명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 국토해양부는 이번 증명검사를 위해 별도의 점검 T/F를 구성하여 공항시설, 장비 및 운영절차 등 공항안전운영체계 1,000여 점검항목 대해 엄격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청주공항관리(주)가 공항운영자로서 공항안전운영에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 공항운영증명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담당: 공항안전과 조재익 주무관 (02-2669-6446) | 등록일 : 2012.12.07)

[국토해양부] 전북 고창 지역을 갯벌생태지구로, 경북 안동·영주 지역을 유교문화관광단지로 육성

– 국토정책위원회,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개발구역 지정」, 「경북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의결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2월 5일 개최된 국토정책위원회 지역발전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 국토부장관)에서 전라북도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와 경상북도 안동·영주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를 지정키로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10.12)」에 포함된 지역간 연계·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4개)중 하나로서 금년 6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마련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종합발전계획('11.4)」에 포함된 사업예정지구(15개)중 3개 지구로서 금년 6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 마련

□ 고창갯벌은 우리나라에서 최대규모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45.5㎢)되어 있으며, 고창갯벌이 소재한 만돌·하전 어촌 갯벌체험마을은 갯벌 드라이브, 정치망 어장 체험, 고기잡기, 조개캐기, 염전체험 등 사계절 갯벌생태 체험학습장이 조성되어 매년 10만명 이상의 탐방객들이 찾고 있는 명소이다.

□ 금번에 지정하는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개발구역 개발계획은

ㅇ 고창군 해리면, 심원면 일원(870,955㎡)에 관광객들의 안전한 갯벌 탐방과 갯벌생태계 보전을 위해 탐방로, 쉼터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올해부터 2016년까지 23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 고창 갯벌 생태지구는 갯벌 생태자원의 관광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 생태체험 관광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경상북도 안동·영주 지역은 유교문화를 상징하는 도산서원, 소수서원이 자리잡고 있으며, 전통가옥이 잘 보존된 선비촌 등 유·무형의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최근 내·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 지역을 문화관광단지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안동시 ('08년 : 4,811 → ' 10년 : 5,344천명), 영주시 ('08년 : 5,120 → ' 10년 : 6,315천명)

□ 금번에 지정하는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안동시 도산면 일원(326,282㎡)에 '15년까지 1,691억을 투자하여 유교문화컨벤션센터 및 유교문화박물관 등이 들어서는「세계유교 ·선비문화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② 또한, 위 선비문화공원 인근부지(518,500㎡)에는 '16년까지 민간자본 252억원을 포함, 총 1,203억원을 투자하여 한옥체험촌, 전통극공연장 등이 포함된 「한국문화테마파크(안동지구)」가 들어선다.

③ 아울러, 영주시 순흥면 및 단산면 일원(960,974㎡)에는 '15년까지 민간자본 300억원을 포함, 총 1,565억원을 투자하여 한문화센터, 마상무예장 등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한국문화테마파크(영주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 이들 발전촉진지구 사업 추진으로 경북지역에 7,54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733명의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권도엽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고창 세계 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와 경북도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가 지역의 특성화된 잠재력을 키우고, 지역경제를 선도해 가는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관련 지자체에 당부하였다.

□ 참고로, 국토해양부는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광역경제권간 연계·협력과 대외 개방형 국토신성장축 구축 등 초광역(해안권, 내륙권) 개발권을 육성하고 있으며,

* 1차원(기초생활권) : 시·군 단위의 삶의 질과 정주여건 보장(163개 시군)

2차원(광역경제권) : 7개 권역의 특화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극대화

3차원(초광역개발권) : 동·서·남해안권, 접경지역, 내륙권

○ 초광역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점사업 선정, 개발구역 면적요건 완화,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사업 참여방식 다양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또한 국토해양부는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부족하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현재까지 경북 백두대간권 등 7개지역*의 신발전지역 종합계획을 수립(종합발전구역 지정)하였으며,

* 전남 서남권('08. 2월), 경북 백두대간권·경북 낙동강권·전북 동부권·충북권 (' 11.4월), 경기권·충남권('12.10월)

○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내 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해 개발사업시 토지수용권 부여, 인허가 의제 처리 등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 조세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담당: 국토정책과 전찬수 사무관 (02-2110-8037) | 등록일 : 2012.12.05)

[국토해양부] 해운대 해수욕장 이안류 안전사고 특허로 해결!

– 내년에는 대천 해수욕장으로 실시간 이안류 감시시스템 확대

□ 국립해양조사원(원장 김석현)은 지난 ‘11년부터 해운대에서 매년 발생하는 이안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를 한국건설기술원(원장 우효섭)과 공동으로 수행, 세계 최초로 실시간 해양관측정보와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을 융합한 “이안류 경보 발생방법”을 개발하여 기술 특허를 취득(’12.10)하고 국유특허로 등록(‘12.11)하였다고 밝혔다.

* 이안류는 해저지형의 형상 및 파도조건 등에 의해 해안에 불균등해진 에너지분포로 인하여 낮은 에너지 쪽으로 바닷물이 몰려 먼 바다쪽으로 갑자기 빠져나가는 흐름

□ 개발된 “이안류 경보 발생방법”은 ‘11~’12년 해운대 해수욕장 개장 시즌동안 이안류 발생 가능성을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위험)로 구분하여 현장 구조대원(122 해경, 119 수상구조대)에게 제공되었으며, 실시간 이안류 발생 감시 및 알림 시스템에 탑재하여 현장에서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쳤다.

□ 특히, 금년 해운대 해수욕 시즌 중 이안류 감시 및 알림시스템 운영결과 이안류가 발생된 총 38일 모두 이안류 발생 “주의”단계 이상이 실시간으로 현장 구조대원들에게 즉시 문자로 발송되었다. 이 정보를 근거로 총 38일 중 18일간 사전에 구조조치 또는 입욕통제가 이루어져 총 400여명이 현장에서 구조됨으로써, 특별한 인명사고 없이 국민들의 안전한 해수욕을 지원하는 등 실제 이안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업무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국립해양조사원은 실시간 해운대 이안류 감시 및 알림시스템의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13년에는 이안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대천 해수욕장으로 동 시스템을 확대 설치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관련 해양정보 생산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담당: 국립해양조사원 이호정 주무관 (032)880-0442) | 등록일 : 2012.12.05)

[농림수산식품부] “어항” 어촌관광을 위한 새로운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전국에 있는 103개 국가어항 부지 576만㎡에 대한 이용계획을 재정비하였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어항부지는 어선의 작업장인 물양장 등 기본시설 이외에 어구야적장과 수산물을 판매하는 난전등으로 방만하게 사용되어 왔다.

○ 이를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관광시설과 주차장 등을 확대하였고,

○ 주 이용자인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어구 보관창고, 어선수리장 등을 늘렸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어항이 되도록 어항 정화시설을 확대·정비한 것이다

□ 최근 국가어항의 기능이 수산물 생산·유통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상업 등 복합기능을 겸비한 수산분야 6차 산업의 신성장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으나,

○ 이전의 부지이용계획은 수산업기능 위주로 수립되어 어촌·어항을 찾는 관광 수요증가 등에 따른 주차장과 친수·휴식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했다.

□ 따라서 이번「국가어항 부지이용계획 재정비」에서는 현실과 미래수요 등이 반영된 어항부지 이용계획과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해 크게 4가지를 개선한 것이다.

○ 어항내 복합기능시설 도입 등 최근의 여건변화에 탄력적 대응 가능토록 기존 세분화된 17개 용도를 7개 용도로 통합·재정비 하고,

* 기존 대분류 3항목인 기본시설, 기능시설, 편익시설은 그대로 유지

○ 어항별 입지여건과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수산중심형, 수산·관광복합형, 도서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특화 하였다.

○ 또한, 어업외 소득증대와 어촌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어항내 어촌관광구역을 설정하고 관광·레저시설 등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였다.

* 속초 대포항 등 10개항 346,834㎡에 대해 구역 설정

** 관광구역내 시설유치 : 관광·레저시설, 특산물판매장, 횟집, 숙박시설 등

○ 어항내 준설토투기장 등 여유부지 중 일부를 어항활성화 차원에서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유부지를 민간에 매각하여 어류양식장 또는 관광·레저시설 등의 부지로 사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여유부지 면적이 4,000㎡이상인 선진포항 등 14개항 228,541㎡

□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어항부지 이용계획 재정비를 통해 이용객들에

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어항환경을 제공하고 어촌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담당: 수산개발과 이상기 사무관 (02-500-2325) | 등록일 : 2012.12.05)

[농림수산식품부]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 인증 캠페인 문화여가친화기업 10개 선정 발표

– KT, 여행박사 2개 기업 장관표장 수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문화여가 친화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여가가 조화되는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을 운영하는 문화여가친화기업 10개를 선정하고, 12월 10일(월)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으로 인증받은 문화여가친화기업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상, 마미로봇, 아모레퍼시픽, 안랩, 여행박사, 한국애보트, 휴비츠, KT, KTB투자증권(가나다순) 등 총 10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KT’와 ‘여행박사’에는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 ‘KT’는 ‘소통 기반의 글로벌 1등 Great Work Place 기업’을 표방하여, 직원들의 여가를 위한 전담부서로 ‘GMC 전략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직원설문조사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 관련 직원 만족도를 조사하여 관리자들의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 ‘여행박사’는 ‘여행사’의 특색을 살린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매년 전 직원이 가족을 동반하여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라톤 기록 갱신에 대한 보너스를 지급하며, 읽고 싶은 책의 비용을 무제한으로 지원하고, 본인 회사 깃발을 꽂고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직원에게는 자전거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여가와 휴식이 업무아이디어 구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게임룸, 수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사내 미술품 전시, 예술가 초청 강연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대상’은 정시 퇴근과 휴가 사용 여부 등을 부서평가에 반영하여 직원들의 여가시간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해외 문화에 대한 체험 및 연수기회 확대를 위하여 ‘에이스(ACE: Abroad Culture Experienc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마미로봇’은 회사 이익의 1% 이상을 직원 여가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지난 3년 동안 매주 축구경기를 실시하였고, 외국어 동아리 참여자에게는 주 1회, 1시간씩 조기퇴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아모레퍼시픽’은 ‘스마트워크’를 통해 직원들의 탄력적 시간 운영을 배려하고 있으며, ‘해피 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동호회 지원, 문화공연 할인 이벤

트, 다양한 테마 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안랩’은 사내에 ‘Fun Zone’ 등 다양한 여가시설을 갖추어 근무시간 중에도 자율적으로 놀이, 운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

○ ‘한국애보트’는 경영진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제안, 실행, 평가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원들이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족을 회사로 초청하는 ‘패밀리 사이언스 데이’, ‘패밀리 쿠킹 클래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휴비츠’는 ‘눈만 뜨면 출근하고 싶어지는 회사를 만들자’는 목표를 설정하고 ‘FC 휴비츠’라는 여가전담조직을 통해 임직원의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다양한 여가행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내 행사는 평일에 실시하여 개인 여가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 ‘KTB투자증권’은 ‘Fun 경영'이라는 최고 경영진의 문화여가 경영에 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KTB놀이터’라는 고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여가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국 금융센터를 갤러리로 등록하고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등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에 대한 이번 인증에는 총 30개 기업이 신청한 바 있으며, 학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전문가와 기업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문화여가’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과 의지, 예산과 조직, 여가지원 제도와 시설, 여가프로그램 등을 평가하여 ‘문화여가친화기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 이번 ‘문화여가친화기업’ 인증은 사회 전반의 여가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머니투데이(대표이사 홍선근)와 공동으로 마련하였으며, 향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와 함께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 인증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이날 인증기업 수여식에서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여가친화기업에 대한 인증을 통하여 사회 전반의 ‘일과 여가의 균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여가활동의 저변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1인 2기’, ‘1박 2일’ 사업을 장려하는 등 가족, 직장 및 지역 단위의 문화여가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문화여가정책과 남태평 주무관 (02-3704-9456) | 등록일 : 2012.12.10)

[외교통상부] ‘아리랑’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확정

1. “아리랑”이 12.5(수)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 위원회에서 유네스코 무형유산대표목록으로 최종 등재가 확정되었다.

ㅇ 그간 우리 정부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유산인 ‘아리랑’의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해왔는바, 금번 아리랑 등재는 국제사회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ㅇ 금번 ‘아리랑’ 등재 결정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은 종묘제례, 판소리, 강강술래, 강릉 단오제 등 총 15개로 증가하였다.

2. 우리 정부는 2012.6월 ‘정선아리랑(2009년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신청)’을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아리랑’으로 확대, 수정한 무형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서를 대표하는 ‘아리랑’의 상징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ㅇ 금번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확정을 계기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아이콘이자 국가 브랜드로서 ‘아리랑’의 위상과 가치 제고는 물론 ‘국민의 아리랑’으로서 세대를 거쳐 재창조되고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는 아리랑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아리랑 등재에 관한 위원회 결정문(7.COM 11.27)은 아리랑이 한민족의 대표적인 민요로서 공동체의 정체성과 단결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고, 한국이 제출한 등재 신청서에도 아리랑 등재가 남북한 간 대화와 교류증진 등 전세계 한민족간의 유대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ㅇ 한편, 금번에 등재된 ‘아리랑’은 △대한민국 지역에서 통용되는 아리랑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무형유산협약상 등재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무형유산보호정부간위원회에 각 유산에 대한 등재 여부를 권고하는 심사보조기구도 만장일치로 ‘등재’ 권고 판정(금번 36개 심사 대상 중 2개만 만장일치 권고)을 한바 있다.

3. 정부는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문화를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리고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무형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등 대유네스코 외교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통상부, 담당: 공공외교정책과 (02-2100-7541) | 등록일 : 2012.12.06)

[서울특별시] 청계천 주변 일대에 관광호텔 건립 계획 허용

- 장교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453객실을 갖춘 관광호텔 건립

ㅇ 서울시는 12월 5일(수) 제2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 장교동 22-4번지 일대에 위치한 장교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해 1층 가로활성를 위한 상가배치와 차량 진·출입구 등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개선하는 것 등을 보완으로 "조건부가결" 시켰다고 밝혔다.

ㅇ 장교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은 업무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고자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 대지면적 1,806㎡, 용적률 1,050%, 최고높이 95m이하의 453실을 갖춘 관광호텔을 신축하게 될 전망이다.

ㅇ 금번 장교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결정은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부족한 숙박시설 공급 등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사업추진을 통해 위축된 부동산시장과 경기침체 등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특별시, 담당: 도시정비과 김지호 (02-2171-2692) | 등록일 : 2012.12.06)

[서울특별시] 역삼공원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결정

– 제2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 서울시는 2012년 12월 5일 제2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역삼동 635번지 일대 역삼근린공원에 대한 문화공원으로의 변경결정(안)을 '원안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공원의 기능 및 주제에 따라 공원종류를 세분한 도시공원법에 따라, 국기원과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의 문화적 특징 등을 감안한 공원세분 변경결정(안)이 입안되어 금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한 것이며,

□ 향후 국기원 재조성사업 등을 통해 태권도에 대한 문화체험 공간 등의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활성화될 것이 기대된다.

(서울특별시, 담당: 시설계획과 강진오 (02-2133-8419) | 등록일 : 2012.12.06)

[서울특별시] 서울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록

- 잠정목록에 등재되면 1년 뒤부터 등재신청자격 부여
-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오르게 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청신호
- 시(市), 전담조직인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연구소' 설립해 운영 중
- 국제적 기준에 맞는 보존·관리를 위해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마스터플랜' 수립
- 시민순성관, 한양도성자문위원회 등 시민과 전문가가 주축이 된 거버넌스 구축

□ 서울시는 서울 한양도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이름을 올렸다고 4일(화) 밝혔다. 이로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양도성 세계유산 목록 등재의 전망이 밝아지게 되었다.

○ 세계유산이 되기 위한 예비목록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가치가 있는 유산들을 목록화해 향후 충분한 연구와 자료 축적을 통해 세계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잠정목록에 등재되면 1년 뒤부터 등재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한양도성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예비목록인 잠정목록에 등재(11. 23)되었음을 통보해옴에 따라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로 이어지는 길은 더욱 밝아지게 되었다.

관련 도메인 : http://whc.unesco.org/en/tentativelists/state=kr

□ 한양도성은 지난 4월 20일에는 문화재청이 선정하는 잠정목록 신청대상에 선정되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5월 7일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9월 28일 한양도성 전담부서인 「한양도성도감」과 「한양도성연구소」를 신설하는 등 유네스코가 권고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 서울시는 한양도성을 유네스코가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진정성과 완전성 기준에 맞추어 관리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 한양도성 재탄생 종합계획(가칭)」을 올해안에 마련해 50개 사업에 2013년에는 11,142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세계유산에 걸맞은 지속적인 보존·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013년에 우선적으로「서울 한양도성 연결 사업」 등에 7,146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한양도성박물관」을 2014년 4월까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내 약 1,990㎡의 공간을 활용하여 건립한다. 한양도성 전시관 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공사 (1,174

백만원)등에도 3,996백만원이 투입된다.

- ㅇ 한양도성 관리에는 시민과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축성관련 인물들의 뿌리를 찾아 시민 순성관으로 임명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한양도성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이 주축이 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서울시는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서울시의 도시 품격과 경쟁력 향상의 전기가 마련되고 아울러 관광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울시는 문화재청과의 상호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한양도성의 세계유산적 가치 발굴을 위한 학술연구와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담당: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신영문 (02-6321-4495) | 등록일 : 2012.12.04)

[부산광역시] 카자흐스탄 장기휴양형 의료관광 찾아 부산을 누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국립방송 및 현지 의료관광 관계자 부산 방문

◈ **12.10~14(5일간), 러시아권 중증환자 부산 유치를 위해 카자흐스탄 의료관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장기휴양형 의료관광 상품개발을 위한 팸투어 실시**

◈ **12.10 18:00, 해운대 그랜드호텔 22층에서 러시아권 환자 유치를 위한 전략 컨퍼런스 개최**

부산시와 부산권의료산업협의 및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사업단은 러시아권 중증환자 부산 유치를 위해 카자흐스탄 의료관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장기휴양형 의료관광 상품개발을 위한 팸투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국립방송국과 암센터 의료관계자, 아시아나항공, 현지여행사 대표로 구성된 이번 팸투어단은 러시아권 및 카자흐스탄 중증환자를 위한 장기휴양형 의료관광 상품개발과 체험관광 및 특화 상품 개발을 위하여 부산의 여러 명소들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카자흐스탄 알마티 국립방송은 부산의 온천, 스파, 면세점 및 부산 향토기업인 진삼가 등을 방문하고 갈맷길 체험 등을 통한 다양한 장기 휴양형 프로그램을 보도할 계획이다.

또한, 팸투어와 더불어 12월 10일 오후 6시에는 해운대 그랜드호텔 22층에서 러시아권 환자유치 전략 컨퍼런스도 개최한다. 컨퍼런스를 통하여 러시아권의 의료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유치전략을 논의하고 팸투어 기간 동안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의료기관과 팸투어단간 일대일 밀착형 비즈니스 상담회도 추진하여 '의료관광 도시 부산'을 홍보할 계획 이다. 아울러, 지역 의료기관 홍보를 확대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나눔의료, 현지 의료진 연수를 통한 양국 의료인간 학술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러시아권 환자유치 경쟁우위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상품개발과 마케팅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실시되는 이번 팸투어는 부산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인 교류사업과 협력으로 이루어진 성과로 평가된다."라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담당: 보건위생과 최명식 (051-888-2492) | 등록일 : 2012.12.10)

[부산광역시] 부산 강서구 일대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 국제물류 및 첨단산업 중심의 친환경 생태 수변도시 조성

– 중앙도시계획위원회(‘12.11.29) 및 친수구역조성위원회(‘12.12. 7)에서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을 심의 확정

□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 강서구 일원에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친수구역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2008년 현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동남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되어 그동안 부산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국제산업물류도시 2단계 지역에 조성되며,

○ 동남권 산업벨트와 연계한 자동차, 조선, 항공 등 첨단산업과 김해국제공항 및 신항만 배후 국제물류허브로 조성, 글로벌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부산의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첨단·물류 복합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며,

○ 국제해운비지니스 클러스터 중심의 국제 업무지구와 R&D 단지 등을 조성하여 글로벌 미래첨단도시를 실현할 계획이다.

□ 또한, 4계절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는 천혜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수상레저 및 여가를 만끽할 수 있는 수변문화레저 도시로 조성하고, 평지의 특성을 살린 자전거 도로망, 친환경 신 교통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중교통이 중심이 되는 저탄소 녹색도시를 구현하며,

○ 하천변 저류지(10개소) 등 충분한 방재시설을 설치하여 이상강우 및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누구나 유·무선으로 교통, 행정, 교육, 안전 등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Smart-City로 조성할 계획이다.

□ 또한, 철저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통해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수질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와 철새서식지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고,

○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점·비점오염원 관리 강화와 맥도수문 및 대저수문을 활용한 물순환 촉진을 통해 수질개선을 유도하며,

○ 물순환형 저영향개발(LID) 기법 도입과 철새 서식환경을 고려한 생태습지용지 약 626천㎡와 수변으로부터 30~50m의 폭의 완충 녹지축을 조성하여 친환경 생태주거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 저영향 개발(LID) : 침투, 저류시설과 인공습지, 실개천, 식생대 등을 통해 우수의

침투 및 정화를 유도하고 비점오염원 배출을 저감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부산시에서는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2013년에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14년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 부산의 경제 발전과 동북아 해양수도를 이끌어 나갈 견인차 역할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 앞으로,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과정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7조 8천억원, 4만3천명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사업 완료 후에는 첨단산업, 국제물류, 기능이 복합된 자족도시로서, 수변 레저 · 문화 · 생태 기능이 조화된 새로운 생태 친수도시로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부산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역시, 담당: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 권원중 (051-888-8296) | 등록일 : 2012.12.07)

[대전광역시] 대전시, 관광안내서비스 평가서 전국 '우수'

– 한국관광公, 전국 16개시도 관광안내소 서비스평가…대전 5곳 중 3곳 선정

ㅇ 대전시는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전국관광안내소 평가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ㅇ 6일 시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가 전국 16개시도 관광안내소 23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 모니터링 결과 대전 5곳 중 3곳이 우수 관광안내소로 선정됐다.

ㅇ 이번 평가는 한국관광공사가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234곳의 관광안내소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모니터링을 통해 관광안내소 서비스 품질개선 및 관광안내원 서비스 의식제고를 평가해 우수 안내소 20곳을 선정했다.

ㅇ 평가결과 전국 종합점수는 평균 73.3점을 기록했으며, 지역별 점수에선 대구가 85.3점으로 최우수, 대전(85.1점), 울산(82.2점), 부산(81.9점), 서울(80.0점) 순으로 나타났다.

ㅇ 대전은 내국인 방문(87.1점), 외국인 방문(85.6점)으로 전국에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전화평가에서는 내국인(86.9점), 외국인(80.8점)으로 다소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ㅇ 그러나 전국 우수 관광안내소 20곳 중 서울 3곳, 대구 2곳, 부산·울산 각 1곳 등이 선정된 반면 대전은 5곳 중 3곳이 선정돼 전국에서 관광안내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ㅇ 대전시 우수 관광안내소로 선정된 대전종합관광안내소, 오월드 광안내소, 서대전역관광안내소의 근무자에게는 국내 연수 기회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ㅇ 시는 이런 성과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인 관광안내원의 서비스 교육 강화와 시설 개선 등을 통해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실천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ㅇ 특히 종합점수로 대구가 85.3점으로 최우수 지역이었다. 이어 대전(85.1), 울산(82.2), 부산(81.9), 서울(80.0) 순이었다. 내국인과 외국인 방문조사 및 내국인, 외국인 전화 조사에서 모두 우수했다.

ㅇ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광안내소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도모하고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친절하고 적극적인 관광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ㅇ 한편 대전지역에는 종합관광안내소(유성 봉명동) 등 총 5곳의 관광안내소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통역이 가능한 안내원 13명이 근무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담당: 관광산업과 박중규 (042-270-3972) | 등록일 : 2012.12.07)

[강원도] 숲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연휴양림 입장객 크게 증가

– 집다리골자연휴양림 체험시설 확충, 숲속교실 운영 등

ㅇ 강원도가 직접 운영하는 집다리골자연휴양림과 강원숲체험장의 입장객이 11월말까지 54천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3% 증가하였다.

ㅇ 강원도는 집다리골자연휴양림과 강원숲체험장에 지난 2011년부터 2년간17억을 투자하여 숙소 등 노후화된 시설물을 집중 보완하고 이용객 중심의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하여 이같은 좋은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ㅇ 특히, 집다리골자연휴양림은 사계절 맑고 깨끗한 풍부한 물과 웅장한 바위로 이루어진 계곡과 천연 활엽수림 원시림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어 오래전부터 가족단위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숲체험 교실”을 운영하여 학부모, 선생님, 학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년부터는 춘천시내 전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ㅇ 서면 오월리에 위치한 강원숲체험장은 숲해설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가족 및 단체이용객들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숲속모험동산, 활궁장, 풍림욕장, 데크산책로 등 휴게·편의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시설을 도입하여 이용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ㅇ 휴선아카데미, 한림성심대학교와 협약을 통하여 “자연건강 숲치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휴양객이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한층더 넓어져 향후에도 이용객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김준해 산림개발연구원장은 2013년에도 국도비지원 10억을 투자하여 명상·요가장, 황토찜질방, 야생화공원, 장애우가 이용가능한 데크산책로 등 다양한 숲체험·휴게·편의시설을 확충, 전국 최고의 산림휴양시설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강원도, 담당: 산림개발연구원 (033-243-5340) | 등록일 : 2012.12.07)

[강원도] 원주공항 최근 5년간『이용객 최다, 탑승률 최고치』기록

- 2013「1일 2회 증편운항」구체화

□ 강원도는 금년 11월말 기준으로 최근 5년간「원주~제주노선의 공항 이용객 및 탑승률」을 조사한 결과, 공항 이용객 77,528명과 탑승률 73.2%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 이용객(명) : ('08) 77,389 → (' 11) 70,944 → (' 12.11월) 77,528

○ 탑승률(%) : ('08) 65.7 → (' 11) 62.9 → (' 12.11월) 73.2

※ 올 연말까지 공항이용객 82천명 상회 전망

□ 이러한 성과를 거둘수 있었던 것은 원주공항을 이용하는

○ 도내학교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42개교 7,767명이 이용 하였으며 (2011년도 19개교 1,311명)

○ 항공운임 특별할인 3회실시(25~50%) 및 할인대상 인원을 단체 10인상 에서 4인 이상으로 조정

- 할인율 : 40~50%(1.15~3.22), 25~45%(7.14~8.24, 9.29~현재)

- 할인인원 조정 : 단체 10인이상 → 4인이상

○ 도민들의 원주공항 이용 등 모객 유치에 적극 동참하는 우수여행사에 대한 시상 (연 2회)

○ 원주공항 이용을 위한 여행사 참여안내 5회 1,859개업소, 기관·단체5회 1,166개 기관, 학교 3회 1,932개교, 일간지 광고 등 집중적인 홍보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 현재 원주~제주노선 운항시간 등은

○ 운항횟수 : 대한항공(188석)이 매일 1회 운항

○ 운항시간 : 제주출발 11:10 → 원주도착 12:20 원주출발 13:15 → 제주도착 14:25

○ 4인이상 단체에 대해 요일에 따라 25~35% 수준의 항공운임 할인을 실시중에 있다.

□ 강원도는 원주~제주노선 운항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되고, 공항 이용객 증가 등 고려하여 내년도에는「1일 2회 증편운항」에 목표를 두고 공항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양양공항 국제노선과 연계한 외국인 원주공항 이용방안 마련

- ㅇ 제주도민과 원주공항 1시간이내 접근 가능한 경기 등 타시도민 유치
- ㅇ 도내 수학여행단 원주공항 이용시 인센티브 지원 활성화
- ㅇ 대한항공과 협의를 통한 항공운임 수시 할인 실시
- ㅇ 다각적인 홍보 추진(인터넷, 라디오, 신문, 방송 등)
- ㅇ 원주·춘천권 외국인 맞춤형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등

□ 김남수 문화관광체육국장은『원주~제주노선의 공항이용객 증가 등 고려하여 1일 2회 증편운항이 조기에 실현될 수있도록 대한항공과 협의를 진행하고, 원주권을 명실상부한 중부내륙권의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강원도, 담당: 관광마케팅과 (033-249-3391) | 등록일 : 2012.12.04)

[경기도] 취약계층에 무료 겨울여행 제공

-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 약 30단체(약 950명) 선정
- 12.21(금) ~ 12.28(금) 경기도관광협회에 신청
- 2013.1.10.(목), 1.20(일) 중 택해 당일 여행

경기도는 평소 여행이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내여행을 지원하는 '2012 경기도 기획여행바우처 겨울여행' 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대상자를 모집한다.

도내 복지시설별로 신청을 받아 선정절차를 거쳐 950여명을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시설은 2013년 1월 10일(목)부터 1월 20일(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단체여행을 실시한다. 여행지는 눈썰매장, 온천, 테마파크 등이다. 이번 여행은 원하는 곳에서 출발, 도착하고 여행경비 일체를 지원하는 홈투홈(Home to Home) 서비스로 제공된다.

접수기간은 12. 21(금)부터 12. 28(금)까지이며, 사회복지시설별로 경기도관광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2013년 1월 7일(월)에 여행바우처와 경기도관광협회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 여행바우처(www.tvoucher.kr) 경기도관광협회 (www.gta.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경기도관광협회(031-241-2527~8, 2936).

(경기도, 담당: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031-8008-8542) | 등록일 : 2012.12.10)

[경기도] 경기도, 동남아 공중파와 손잡고 관광객 유치 총력 팰쳐

- 태국 국영 TV CH9, 인도네시아 공중파 antv 등 경기도 특집프로 촬영
- 지난해 태국 방송 이후 양평 레일바이크 외국인 80%가 태국인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급성장 중인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태국과 인도네시아 주요 공중파 방송과 손잡고 경기도 관광특집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촬영, 현지에 방영한다.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인도네시아 유명 여배우 겸 가수 '애스티'와 신예배우 '키키'가 경기도를 방문, 경기도 관광특집 프로그램 촬영을 마쳤으며 이번 달 중으로 현지 유력 공중파 방송인 antv에 방영 예정이다. 또 지난달 12일부터 16일까지 태국 유명 여배우 '쿤잉잉'이 경기도를 방문해 경기도 관광 프로그램을 촬영했으며 내년 2월 태국 국영 TV CH9에 방송된다. 이번 촬영은 한국관광공사와 경기관광공사의 공동 노력과 지원으로 이뤄졌다.

CH9 방송에 맞춰 경기관광공사는 내년 2월 열릴 태국 관광 박람회(TTAA)에 Let\s go Gyeonggi-Do 상품을 출시하고, 4월 초 태국 최대 명절인 송크란 축제 기간 동안 태국 관광객의 경기도 방문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관광객은 최근 급성장 중으로, 방한 인도네시아 관광객 수는 최근 2년간 24%이상 증가했으며 한국을 찾는 태국 관광객의 78.4%는 경기도를 찾고 있다.

경기관광공사는 동남아 관광객 중 젊은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에 착안, 경기도 아울렛 쇼핑, 피부미용체험, 한류 드라마 촬영지 방문, 겨울체험 등 여성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콘텐츠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해 10월에도 태국 국영 TV CH5를 초청, 경기도 관광 특집 프로그램을 현지에 방영했으며, 방송에 양평 레일바이크가 소개 된 후 레일바이크 방문 외국인의 80% 이상이 태국인일 정도로 큰 효과를 봤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지 방송을 초청해 여행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는 것은 효과적인 관광객 유치 방법으로, 앞으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동남아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담당: 경기관광공사 해외마케팅팀 (031-259-6945) | 등록일 : 2012.12.07)

[경기도] 경기도 알짜 관광정보 어디 모였나 했더니

– 경기관광포털 방문자, 상반기 대비 6배 이상 급증

– 전시, 관람, 체험, 레저 등 26개 관련 사이트 연계해 인기

경기도 알짜 관광정보를 모아 놓은 경기관광포털사이트(www.ggtour.or.kr) 방문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5일 올해 상반기 15만6,720명이었던 경기관광포털사이트 방문자 수가 지난 11월 말 현재 6배 이상 증가한 97만921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월 평균 방문객 수도 2만5천명에서 19만4천여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지난해 총 방문객 37만7천명과 비교해도 3배에 가까운 사람이 하반기 5개월 만에 이 사이트를 방문했다.

도는 이같은 방문객 증가 이유에 대해 하반기 들어 추진한 융복합 업무 추진으로 보고 있다.

도는 올 하반기부터 전시·관람형 10개 사업, 체험·학습형 15개 사업, 휴식·레저형 6개 사업, 관광인프라 9개 사업 등 경기도 각 부서가 실시하고 있는 26개 사업의 사이트를 경기관광포털과 연계해 경기관광포털을 도의 대표적 관광 소통창구로 만드는 데 주력해 왔다.

아울러 이지데이(ezday) 등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를 활용한 홍보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노출을 강화하는 등 경기관광포털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달 27일에는 포털사이트 다음과 체험학습 콘텐츠 제공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매년 3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경기도 대표 관광포털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담당: 관광과 관광기획팀 (031-8008-4724) | 등록일 : 2012.12.04)

[경상북도] 아름다운 자전거길은 경북이 최고

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아름다운 자전거길 유지관리 평가'에서 상주시가 전국 최우수상(상사업비 2억5천만원)을 문경시가 장려상(상사업비 1억원)을 수상해 오는 11일 정부중앙청사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월, 국토종주 자전거길의 완성으로 자전거 인프라의 획기적인 전환계기가 마련돼,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의 관심과 유지관리, 관광상품 개발, 지역경제와의 연계성 등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경북도는 2개 시·군이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시·도의 평가를 거쳐 올라온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자전거길 유지·관리 노력 및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자전거길 관리 수준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이뤄졌다.

또 자전거길 조성·관리 관련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평가단을 구성해 인프라, 유지관리, 지역경제 연관성, 주민참여 수준을 지표화 하여 현장실사 거쳐 15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최종 10개 지자체의 순위 결정은 주부, 대학생, 동호인등으로 구성된 국민평가단이 공개 다면평가를 실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김상동 경북도 도시계획과장은 "지역특색을 반영한 매력적인 자전거길을 자치단체와 주민이 함께 조성, 자전거길을 지역의 대표적 브랜드화 하고, 이번 평가로 받은 상사업비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 담당 : 기획조정실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태 (053-950-3090) | 등록일 : 2012.12.10)

[경상북도] 경북 문화재, 격이 높아졌다

경상북도가 도 문화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도지정문화재 중 역사성과 예술성이 뛰어난 문화재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로의 승격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도 문화재에 대해 등급조정 및 국가승격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통해 도 문화재의 건축·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국보 3건, 보물 15건, 중요민속문화재 6건 등 총 24건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되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이 가운데 국보로 지정된 '안동 봉정사 대웅전'은 중심 법당인 대웅전에 석가모니불상을 중심으로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좌우로 모시고 있다.

건물 안쪽에는 단청이 잘 남아 있어 이 시대 문양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으며, 건실하고 힘찬 짜임새로 조선 전기 건축양식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보물로 지정된 '예천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이중의 대의를 걸친 불상으로 가슴과 옷 주름, 무릎과 발 등의 표현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신체의 볼록한 양감이 강조된 모습이 특징이다.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안동 번남댁'은 퇴계 이황의 둘째 손자 계열의 집으로 창덕궁을 모방해 지었다고 전해지는 건물이며, 조선후기 사대부가의 전통적 주거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이다.

경북도는 올해도 국가지정 승격을 위해 지난 6월 25일 건축분과 제2차 소위원회를 개최해 도지정문화재 중 의성 만취당 등 5건을 보물, 사적, 중요민속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포항 흥해향교 대성전 등 22건의 문화재자료를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등급을 조정해 도지정문화재의 위상을 높인바 있다.

아울러 오는 17일 건축분과 제4차 소위원회를 개최해 예술성과 역사성이 뛰어난 도지정문화재를 국가승격 51건 및 등급조정 32건 총 83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경북도 이성규 문화재과장은 "앞으로도 가치 있고 우수한 문화재에 대해 주기적으로 등급조정을 거쳐 도지정문화재의 위상을 격상시킬 것"이라며 "승격된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비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담당 : 기획조정실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태 (053-950-3090) | 등록일 : 2012.12.10)

[경상북도] 유교와 선비문화를 세계에 알린다

경상북도 안동과 영주에 유교 · 선비 문화 부흥을 위한 기틀이 마련된다.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일원 844,782㎡에 「세계유교 · 선비문화공원 및 한국문화테마파크」,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및 단산면 병산리 일원 960,974㎡에 선비촌 등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이 12월 5일 국토해양부 국토정책위 지역발전분과위원회(위원장:국토부장관)심의를 거쳐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 사업지구는 2008년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5+2광역경제권 실현을 위한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되었고, 2011년 4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거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발전계획이 반영되어, 올해 11월 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결되었다.

「세계유교 · 선비문화공원 및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은 안동호를 중심으로 한국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관광 수요를 충족하고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 한국문화의 생활화 · 산업화 ·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며, 「한국문화테마파크」는 영주시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차세대 관광요소를 개발 한국적인 유교문화를 선도하는 거점지역으로 조성한다.

안동지구는 주변의 도산서원, 예안향교, 퇴계종택 등 많은 문화유적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계유교문화컨벤션센터와 세계유교박물관을 설치하여 세계문명과의 대화의 장을 만들어 전 세계에 한국적인 유교정신을 알린다.

또한 영주지구는 선비촌, 소수서원, 부석사 무량수전 등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하여 선비정신의 육예(六藝)를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한문화센터, 마상무예장, 국궁장 등을 설치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부지에 조성되는 안동의 「세계유교 · 선비문화공원」과 영주, 안동의 「한국문화테마파크」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한국의 유교 · 선비문화를 부흥하고 한국문화 고유의 전통적 가치를 관광자원 화하여 낙후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것으로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일원에 1,127,838㎡ 규모로 2016년까지 총 2,89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세계유교문화박물관, 컨벤션센터, 전통호텔 등이 조성된다.

경상북도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은 국토정책위 심의가 통과되어 올해 중 국토해양부의 지정고시가 되어 내년에 실시설계 및 착공을 하게 되면 안동과 영주시에 전통역사문화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연간 약 162만명이 방문하게 되고, 약 7,540억의 생산유발 효과 및 6,733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 담당 : 기획조정실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태 (053-950-3090) | 등록일 : 2012.12.06)

[경상북도] 경북 관광블로그, 대한민국 블로그어워드 '우수상'

경상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한국블로그산업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후원하는 '2012 대한민국 블로그어워드'에서 '어서오이소! 경북' 관광블로그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블로그어워드'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 및 사용자들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우수 블로그를 평가하고 시상하는 행사로서 소셜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블로그를 포함한 SNS사용자 및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이다.

'어서오이소! 경북' 관광블로그(http://blog.naver.com/gbnadri)는 경북의 우수한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2007년 1월에 개설, 하루 평균 800여명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으며, '목적지향이 뚜렷하고 그에 맞는 방문자와의 소통도 활발해 성공적인 블로그'라고 평가받아 관광 블로그로서 유일하게 광역지자체부문 우수상에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희도 경북도 관광마케팅사업단장은 "경북관광블로그와 더불어 활발하게 운영 중인 경북관광 페이스북, 경북관광알림이 트위터를 통해 SNS채널 활용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며 "경북의 테마별 관광정보를 흥미로운 콘텐츠로 제작해 방문자와 소통하기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 담당 : 기획조정실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태 (053-950-3090) | 등록일 : 2012.12.05)

[경상북도] 울릉도, '물 반, 고기 반' 바다목장 된다

내년도 연안바다목장화 사업 대상지로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현포리 해역이 최종 선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 연안바다목장화 선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현포리 해역은 청정해역의 이점을 살린 짜임새 있는 기본계획으로 적극 유치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또 지자체, 지역민들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 힘입어 의견을 통합한 점, 도서지역의 균형 개발을 비롯한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원 등 전략적 접근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은 연안해역에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조성해 자원회복을 목표로 정부가 2008년도 국정과제로 보고한 이후 올해까지 전국 20개소 연안해역에 걸쳐 1차적으로 조성하고 2020년까지 50개소로 확대하는 시책사업이다.

1개소 당 사업비 50억원을 5개년 간 지원하는(매년 10억원) 연차적 사업으로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연안바다목장화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경북도 최 웅 농수산국장은 "향후 녹색 섬의 바다목장화 실현으로 연안어장의 생산성을 높여 어업인 소득 증대와 함께 지속 가능한 어업육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며 "아울러 어촌 체험·관광 및 해양레저 시설로 어촌관광 활성화를 실현해 '물반 고기 반'의 녹색섬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포리 해역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연구용역을 착수, 사이드스캔소나에 의한 지형정보를 영상화했다. 아울러 다중빔 음향측심, 현지 어업실태, 과학잠수에 의한 수산 동식물 분포를 파악, 현지어업인 의견 등을 반영해 지난해 8월 완료해 심사에 임했다.

(경상북도, 담당 : 기획조정실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태 (053-950-3090) | 등록일 : 2012.12.04)

[경상남도] 경상남도-(주)하나투어 관광객 유치 MOU 체결

- 12월 11일 도청에서, 경남관광 활성화 공동 마케팅 본격 시동

경상남도(임채호 도지사 권한대행)와 (주)하나투어(대표이사 최현석) 여행사가 12월 11일(화) 오전 11시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경남관광 활성화 공동마케팅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2013년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 기관은 경남 관광산업 활성화 및 상호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과 우호 증진을 통해 성공적인 관광 마케팅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MOU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남관광산업 발전도모와 관광객 유치 활성화, 경남관광자원의 컨텐츠 제작,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경남 국내·외 관광객 모객활동 및 적극적 판매활동 등이다.

특히, 2013년 경남도에는 '부울경 방문의 해'와 '경남민속문화의 해' 행사를 포함해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와 '대장경세계문화축전'과 같은 대형 국제행사도 개최되며, 국가지정 대표축제 6개와 194개의 시·군 자체축제 행사가 펼쳐짐에 따라 (주)하나투어 여행사는 경남의 관광상품을 개발해 경남도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MOU 체결식에 이어 미국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곳 50선' 중 경남관광명소 9개소 등과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대장경문화축전 행사에 대한 홍보영상이 상영되었다.

경남도는 추후 MOU 체결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상호 정보교류 부문별 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최선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담당 : 관광진흥과 전명수 (055-211-4813) | 등록일 : 2012.12.11)

[충청북도] 충청권 광역위, 내 손으로 만드는 여행 앱 출시

전국 최초로 광역경제권 통합관광서비스망을 구축한 능동형 관광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충청여행’이 안드로이드OS 플레이어 스토어와 iOS 앱스토어에 각각 오픈되었다.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안희정 충청남도지사)가 선보이는 이번 ‘충청여행’은 정부정책으로 설정된 7개 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중 최초 사업으로 탄생된 것으로, 충청권의 통합문화관광시스템을 구축하고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관광객 모두를 위한 기능이 구현된 신개념 관광애플리케이션이다. 충청권 문화관광 네트워크를 표준화하고, QR코드를 통한 지역주민 마케팅시스템을 제공하며, 관광객 맞춤형 여행코스를 능동적으로 계획하는 데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충청여행’은 지역별·테마별 콘텐츠들이 각각 독립적인 기능을 하면서도 광역권시스템 안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동된 네트워크를 이루어 보다 체계화되고 일체화된 충청 관광 콘텐츠의 표준 플랫폼을 선보이고 있다.

많은 기능 중에서도 ‘충청여행’이 더욱 주목되는 것은 똑똑한 소비를 추구하는 新관광수요를 반영하여 사용자 스스로 여행계획을 짜고 상호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신개념 관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를 실현한 ‘여행계획짜기’는 사용자가 충청권 내 가고 싶은 관광지를 스스로 선택하여 코스를 구성하면 여행지 간 거리와 상세정보를 안내하는 나만의 지도가 자동 완성되는 능동형 관광시스템으로, 해당 코스와 지도는 코스커뮤니티 공간에서 사용자들 간 상호교류가 가능해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특히 이는 기존 일방적인 정보전달 방식의 틀을 깨고 점차 다양해지는 소비패턴을 인정하여 사용자와 함께 살아 움직이며 진화하는 관광시스템을 개척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또한 충청여행의 세부 기능으로는 ▶ 지역별 여행(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과 테마여행(문화유산, 축제, 박물·전시관, 명승지, 자연관광, 체험여행, 쇼핑 등)으로 구성한 권역 내 총 4천여 개 관광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 충청권에서 추천하는 ‘이달의 추천 여행지’가 제공돼 시기별 관광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 애플리케이션 내에 탑재된 QR코드 기능은 스캔은 물론, 생성·저장·공유도 가능케 한다. 특히 이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각종 홍보도구 활용을 위한 QR코드 유지·관리서비스와 지역 내 공급자와 수요자간 소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QR코드 마케팅 시스템을 완성했다.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콘텐츠별 다국어서비스는 한류문화로 유입되는 외국 관광객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 ‘여행토크’, ‘코스커뮤니

티’, ‘여행후기’, ‘QR댓글’ 등 사용자끼리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참여형 네트워킹 기능과 ▶ 사용자 현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GPS기반 지도부가서비스(주변 관광지 · 음식 · 숙박 · 쇼핑)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김화진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은 “단순 관광안내를 넘어 사용자의 활용방향에 따라 변화무쌍한 기능을 제공하는 ‘충청여행’은 기존 방식의 틀을 깬 살아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그 스스로의 가치를 지닌다.”며 “앞으로 권역 내 지역과 그 주민,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담당 : 공보관 김정현 (043-220-2064) | 등록일 : 2012.12.06)

[세종특별자치시] 금강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대대적 개선

– 세종시, 내년 상반기까지 캠핑객 쉼터 등 조성

□ 세종시 금강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시설이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 · 이하 세종시)는 5일 “4대강 사업으로 조성한 금강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시설이 미흡했다”며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오수정화조 · 물놀이시설(수영장) 등을 비롯, 가로등 · 화장실 · 식수대 등과 잔디광장 · 느티나무 그늘 등을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 오토캠핑장은 지난 3월 23일 개방, 지난 10월말까지 이곳을 찾은 관광객은 1만 3,568명에 이른다.

ㅇ 지난 5월 중소기업청 체육대회에 1,000명, 지난 10월엔 캠핑하는 사람들 전국캠핑대회 350팀 1,400명이 다녀갔다.

□ 세종시에 따르면 그동안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며 드러난 것과 이용자를 상대로 한 설문을 종합한 결과, ‘물놀이 시설이 없고 그늘이 부족해 이용에 불편이 많다’는 문제가 있었다.

ㅇ 이에 세종시는 사업계획을 수립, 국토해양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을 수차례 방문, 국비로 시설을 개선키로 협의를 이끌어 냈다.

□ 세종시 재난방재과 박광래 주무관은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 세종시를 대표하는 휴양관광지로 조성한다”며 “관광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세종시와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캠핑장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담당 : 재난방재과 (044-211-4842) | 등록일 : 2012.12.05)

[전라북도]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워크숍 개최

전라북도는 말산업을 FTA 시대 이후의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레저 수요에 대비 하기 위해 '12. 1월 말산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말산업 육성을 위한 방향정립 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말산업 전문가로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왔다.

그간 월례회의와 전략회의를 통하여 발굴한 15건의 중장기 사업을 발굴했는데 이를 토대로 전북발전연구원 자체 연구과제 수행을 거쳐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주요 사업으로는 · 새만금 말수출전략기지화 사업, 말공동화생산 단지 조성, 말산업 특구조성, 말산업 R&D강화, 생활승마활성화, 말수요 확충, 재활승마 기반 구축, 경마공원 유치 및 조성 등 이다.

본 워크숍은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을 통해 시·군 담당자 연찬과 참여도를 높이고 향후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토의·공유 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1박2일(12.7~12.8)간 진행된 워크숍은 장수군 소재 관광농원에서 말산업 전문가, 시·군 업무 담당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 전북발전연구원 이동기 박사의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한국마사회 승마활성화팀 유성언 차장의 "한국마사회 승마레저 활성화 방안" 특강에 이어 전문가의 주요과제 발표, 분임토의 과제 발표, 부안군 승마장 사례 발표 등 질의 응답 순으로 체계적이고 알차게 진행 되었다.

특히 과제별 발표시간에 전주대학 기전대 박영재 교수는 재활승마 활성화 방안, 서울대 채준석 교수는 승마장시설 확대 추진, 한국마사회 이준근 훈련원장은 승마대회 유치로 레저인구 확대 ,아시아승마협회 양창규 사무총장은 말 조련시설 확대 추진 방안 등 주제 발표 및 토의가 이루어졌다.

(전라북도, 담당 : 관광레저과 (063-280-3281) | 등록일 : 2012.12.10)

[전라남도] 전남 순천에 시내면세점 지정 눈앞

– 로케트전기, 특허 신청 2013년 개장 예정…전남 사후 면세점 37곳

전라남도는 지역 특산품 소비 촉진과 해외 관광객의 쇼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내면세점 1곳 지정을 신청하고 사후면세점 37곳을 지정해 운영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내면세점은 지역 중견기업인 로케트전기가 순천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 4일 관세청에 특허신청서를 제출했다.

로케트전기는 세계 5대 전지메이커인 '로케트'로 널리 알려진 국제적 기업으로 이번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으로 유통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다.

앞으로 관세청의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특허를 받게 되면 2013년 상반기 중 개장하게 되며 약 3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부가가치 효과가 클 전망이다.

사후면세점은 지난 9월부터 전남도와 시군이 홍보활동을 벌여 해외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목포·여수·순천·광양·담양·보성·화순·신안 등 8개 시군의 대형마트와 전자제품·화장품·의류·홍삼·매실·녹차·천일염 판매장 37곳이 지정됐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이 지정 판매장에서 3만 원 이상 물건을 구매한 경우 출국시 공항내 택스프리(TAX FREE) 환급창구를 통해 물품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를 돌려받는 면세제도다.

전남도는 그동안 국제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면세점 지정을 의욕적으로 추진, 이번 시내면세점 특허신청과 사후면세점 지정으로 쇼핑 관광에 대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후면세점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기환 전남도 관광정책과장은 "F1대회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방문하는 수많은 해외관광객들에게 시내면세점과 사후면세점을 집중 홍보해 지역 면세점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내면세점은 국내에 서울 6, 부산, 2, 제주 2 총 10개소가 운영 중이다.

(전라남도, 담당 : 관광정책과(061-286-5222) | 등록일 : 2012.12.10)

[전라남도] 겨울여행은 온 가족 함께 남도에서 즐기세요

– 전남도, 남도 겨울이야기 관광 홍보책자 발간…주요 관광지 쿠폰북 수록

전라남도는 겨울여행을 떠날 여행객에게 남도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겨울 홍보책자 ‘마음도 훈훈해지는 남도의 겨울이야기’를 발간하고 전국 관광안내소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배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남도의 겨울 이야기’에는 온천여행, 신나는 썰매타기, 세시풍속체험, 이순신 백의종군 탐방로,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광지 할인쿠폰, 2013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남도 치유(힐링) 코스, 해넘이·해맞이 명소, 남도별미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특히 관광지 할인쿠폰북이 포함돼 있어 관광객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꾸몄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먼저 생각나는 온천여행의 경우 영광해수온천, 함평해수찜, 신안해수찜, 영암월출산온천, 화순 도곡 가족 스파랜드, 담양 리조트온천, 구례 지리산온천랜드, 금호화순아쿠아나, 순천 낙안온천이 소개됐다.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나는 썰매 타기 장소로는 장성 용매골 대화레저관광농원, 순천 월등 향토관광농원, 화순 백아산 눈썰매장, 여수 에코힐즈 눈썰매장을 소개했다.

백의종군 탐방로 코스의 경우 임진왜란 당시 삼도수군통제사에서 파직당한 이순신이 백의종군해 걷던 길로 ‘비움과 심신 수련, 생명의 길’을 따라 이순신 장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산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책속의 책 쿠폰북(노랑색)에는 2013년 국제대회(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F1 대회) 및 다양한 할인 쿠폰(두륜산 케이블카·월출산 관광호텔·월출산 관광온천·지리산 온천랜드·영광해수온천랜드·유캐슬 호텔·레일 바이크)이 포함돼 있다.

남도로 떠나는 치유 코스의 경우 담양 메타세과이어길, 보성 소설 태백산맥 문학기행길, 장성 축령산,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 고흥 금산면 적대봉 등산 및 소록도 중앙공원~거금대교를 소개하고 있다.

해넘이·해맞이 명소로는 여수 향일암, 보성 율포항 해맞이, 무안 도리포 유원지, 고흥 남열해돋이 해변 및 남해고속카페리선상 해맞이, 영광 노을전시관, 여수 동산공원 해넘이, 여자만 해넘이, 담양 금성산성, 함평 돌머리 해변을 소개하고 있다.

찬바람이 불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남도의 별미 음식으로 무안 세발낙지, 장흥 매생이, 나주 곰탕, 담양 떡갈비 와 대통밥, 보성 벌교 꼬막정식, 순천 짱뚱어탕, 여수 굴구이 등이 있다.

‘남도의 겨울 이야기’는 전남도 관광정보센터(061-286-4052)에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고 누리망 남도코리아(www.namdokorea.com)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기환 전남도 관광정책과장은 “이번 겨울여행 홍보책자에는 온천여행, 해넘이·해맞이 명소, 남도별미를 소개했다”며 “아름다운 남도에서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즐거운 여행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담당 : 관광정책과(061-286-5240) | 등록일 : 2012.12.05)

[제주특별자치도] 2013년부터 여권발급 수수료 2,000원 인하

– 2013.1.1부터 10년, 5년 복수여권 및 유효기간연장여권 발급수수료 2,000원 인하

□ 제주자치도는

○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에 따른 여권법 개정에 따라 2013년1월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2,000원씩 인하된다고 밝혔다.

□금번 인하되는 수수료는

○ 유효기간 10년과 5년인 복수여권 발급 수수료와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 총 3건으로 5년미만 여권과 단수(1회용)여권,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은 금번 수수료 인하에서 제외된다.

○ 한편, 여권수수료는 여권발급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교류기여금은 변동사항이 없어 순수한 여권 발급수수료 인하분은 5~8%이다.

○ 이에따라, 2011년 기준 연평균 여권 신청자 30,019명 중 복수여권과 유효기간연장은 27,489건으로 도민들이 부담하는 여권발급수수료는 연간 총 55백만원 내외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여권발급과 관련

○ 근무시간인 주간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서귀포시청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까지 여권접수와 교부를 위한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매주 10~25명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실 방문 시간대를 사전 예약하는

“여권접수인터넷서비스 (https://passport.mofat.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 2012년 12월 3일부터 제주도청 민원실에서는 여권업무선진화시범사업을 실시, 기존 종이 영수필증을 대체하는 전자소인제 시행,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을 간소화시킨 간편서식지의 병행 사용 등 여권발급행정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 자치행정과과 (064-710-2171) | 등록일 : 2012.12.07)

[제주특별자치도] 2013년도 관광진흥기금, 도민중심으로 지원된다.

– '13. 1/4분기 융자규모 600억원, 신청기간 12. 10 ~ 12. 21

□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객 1,000만시대에 맞는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2013년 관광진흥기금 운용을 숙박시설 확충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 우선, 융자규모를 전년도에 비해 100억 증가한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2013년 1/4분기에 600억원을 집중 배정하고

○ 지역건설업체의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업체가 관광시설 확충사업 주계약 시공사(소요공사의 60%이상 참여)로 참여하는 경우 20%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하고

○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도민들이 대부분 운영중인 일반숙박시설에 대하여도 개보수비에 한해 최초로 2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 하여 숙박업 환경개선을 통한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 융자취급 금융기관도 시중 은행에서 지역 농·축협, 수협까지 확대하여 융자사업자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13년 달라지는 사항 ❖

❍ 보건위생관리법에 의한 일반숙박업 개보수 지원 : 2억원한도
❍ 지역건설업체가 관광시설 확충사업 주계약 시공사로 참여하는 경우 융자지원 우대 : 20%범위내 추가지원
❍ 관광식당 지원대상 규모 제한 : 연면적 330㎡ 이상에 대해 지원
❍ 융자취급 금융기관 확대 : 지역 농·축협, 수협으로 확대(11개→13개)

□ 관광진흥기금은 지난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된 후 중앙단위와 다르게 융자대상 사업을 확대(23종→38개 업종)하여 차별화해 나가고 있다.

※ 제주에서만 차별화 지원 업종(15종) : 기타관광편의시설업(페러세일링 등 6종), 내국인면세점, 관광교통수단(전세버스), 관광농원, 유어장 등

○ 관광진흥기금의 주요 용도는 관광숙박시설을 비롯한 전문(종합)휴양업, 관광식당업, 휴양펜션업 등 관광시설 확충 및 관광사업체 운영, 우수관광기념품개발지원, 관광교통수단 개선 등에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 2013년 1/4분기 융자신청은 도 국제자유도시과(시설자금), 보건위생과(일반숙박업 개보수)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사업체 운영자금) 등 에서 접수하며, 2013년 1월중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13년

6월말까지 도내 13개 협약금융기관(기업, 농협중앙회, 지역 농·축협, 수협중앙회, 지역 수협, 신한, 우리, 외환, 제주, 하나, 국민,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융자를 받아야 한다.

※ 단, 융자선정액 범위내에서 실융자액은 금융기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융자지원계획(세부지침)은 도 홈페이지 입법·공고·고시에 공고

- 사업자부담 융자금리 ('12년 4/4분기 기준)
  - 개인·중소기업(2.29%), 대기업(3.04%), 우수관광기념품개발(3.0% 고정금리), 휴양펜션(3.5% 고정금리)
  * 개인·중소기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대출금리에서 0.75% 우대하는 변동금리 적용
  - 도에서 이자차액 지원(개인·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2.8% 지원)
- 융자기간
  - 관광시설의 건설은 4년거치 5년분할상환
  - 관광시설의 개보수는 3년거치 4년분할상환
  - 일반숙박업 개보수는 3년거치 4년분할상환
  - 운영자금의 경우 2년거치 2년분할상환
  - 우수관광기념품개발 및 관광교통수단 개선 : 2년거치 3년분할상환
  - 일반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시
    : (건설) 5년거치 5년분할상환, (개보수) 4년거치 4년분할상환

○ 융자사업자는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 완료후 융자신청시 해당업종으로 등록(지정 등)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 전 해당업종 자격이 상실될 경우 등 관련규정 위반 시 융자는 취소되고 융자금은 상환하여야 한다.

□ 최근 관광객 증가로 관광숙박시설 확충 등에 대한 기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기금 수요를 감안한 재원 확충을 위해 국내외 면세점 수익금을 기금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 국제자유도시과 (064-710-3401) | 등록일 : 2012.12.07)